

기타사항	2009.4.22	매체명	경인북도일보	게재면	1	크기	3면
제 목	강화 농촌마을사업 순항 속에 확대						
관련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도원천	기사제공	보도성향	긍정	부서명	강화지사
기타사항							

京仁北道日報

2009년 04월 22일 수요일 001면 중첩

강화 농촌마을사업 순항 속에 확대

선원권역, 1차 개발 80% 공정... 불은권역, 4년만에 사업지구 지정 활기

강화지역 농촌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및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강화지역을 전국 최고의 농촌마을 권역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2~3개 사업지구를 확충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강화군 선원권역과 올해 4년만에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선정된 불은권역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강화군과 한국농촌공사강화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강화군 선원권역은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와 신정리, 연리 등 3개 마을을 중심으로 총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된 가운데 2009년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성공적 수행평가를 받으며 3년차를 맞고 있다.

또한 선원권역은 현재 지역정보교류센터와 도농회관 건립 및 광장, 마을쉼터조성 등 총 공정의 80%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올 상반기까지 주요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 사업비 16억원을 포함

한 2단계 사업설계 예산도 확보돼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등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친환경체험수로와 등산로 등의 기반시설 이



설 이 정비되고 농산물보관창고와 저온저장고 등이 설치되는 등 권

역 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올해 강화군 불은권역(고농리, 상동암리, 두은리)이 4년만에 기본계획 수립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총 사업비 70억원이 들어 내년부턴 5년간 불은면 고농리 등 6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착수한다.

불은권역에는 최근 동백경화화고 지협증 예방에 효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강화약쑥과 강화약쑥한우를 특화상품으로 개발해 친환경 농업산물 물물 도시민의 안정적인 먹거리로 제

공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주민들과 협의해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강화군도 불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주민들의 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견학 등에 필요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강화지역 농촌개발사업이 활기를 띠자 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며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사례 견학을 늘리고 권역별 맞춤형 주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도농교류활동 지원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3개 권역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강화군 선원면 3개(지산리, 신정리, 연리)마을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총 67억4천여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강화군 불은면 3개(고농리, 상동암리, 두은리) 마을을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강화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유기동 기자/gidaily.com

임재왕 기자/gibdaily.com

담당	팀장	지사장	결
신	화	일	재